

보도시점 : 2026. 7. 1.(수) 06:00 이후(7. 1.(수) 석간) / 배포 : 2026. 6. 30.(화)

청년 의견 반영하면 ‘마일리지’ ...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 감수성 높인다

- 주거중심에서 국토·교통 전 분야로 청년 친화 정책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발굴한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‘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*’를 7월부터 도입해 주거뿐 아니라 교통·도시·건설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.

*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(사업) 및 신규 사업 발굴, 청년과의 소통·홍보실적, 청년체감도·만족도 등 평가 후 마일리지 부여

○ 그동안 주로 청년월세지원, 청년특화주택 공급 등 주거분야에 집중되었던 청년정책의 외연을 국토·도시, SOC건설, 교통·물류 등 국토교통 전 분야로 폭넓게 확장하여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기획했다.

□ 구체적으로 2030 청년자문단이나 온라인패널 등을 통해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거나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신규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는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, 연말에 누적된 실적과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.

○ 이번 제도 도입으로 더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청년의 수요가 반영된 체감형 정책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현정 기획조정실장은 “이번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모든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”라고 평가하며,

- “앞으로 모든 정책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해서, 청년들이 일상에서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국토교통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청년정책총괄팀	책임자	팀 장	성은하 (044-201-3626)
		담당자	사무관	강규욱 (044-201-3636)
			주무관	정수현 (044-201-3639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